

# 다카하시 도오루와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

—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

박 광 현

- |                       |                         |
|-----------------------|-------------------------|
| 1. 시작하면서              | 4. ‘조선문학’ 강좌의 교수로서 다카하시 |
| 2.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학’의 출발 | 도오루                     |
| 3.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규정 | 5. 결론을 대신하여             |

## 1. 시작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은 ‘내선공학(內鮮共學)’을 표방한 식민지 조선의 유일한 종합대학(University)이었다. 교수를 핵으로 한 강좌제 중심으로 운영된 이 대학은 ‘내지’의 어느 제국대학에도 없는 식민지 조선 특유의 학과=강좌를 두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학과가 바로 ‘조선어학조선문학’(이하, ‘조선문학’)과 ‘조선사학’이었으며, 이는 경성제대에만 존재하는 ‘제국’(대학) 유일의 강좌였다. 특히,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조선문학’ 강좌에서는 조운제(1회), 이희승(2회), 김재철, 이재욱(3회), 이승녕(4회), 방중현(5회) 등 한국에서 1세대라고 불리는 국문학자들이 수학하였다.<sup>1)</sup> 그들은 재학 중에 혹은 졸업

\* 이 논문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주최한 「韓日국제WORKSHOP:제국의 學知와 경성제대의 교수들」(2007. 6. 22-23)에서 「당위와 이념으로서 ‘창조’된 강좌, 다카하시 도오루의 경성제대 ‘조선문학’」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필자의 발표에 좋은 질의와 토론으로 이 논문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발표 당시 때와 제목이 다른 것은 심사위원들의 제목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면서 바꾸었다.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의 ‘신입교원 정착연구비’를 지원 받아 작성한 것이다.

1) 그 외에도 윤응선, 정학모(6회), 김형규, 구자균, 신원우, 손낙범, 정형용, 李執洙(7

과 동시에 ‘조선어문학회’를 조직하는 등 경성제대 출신의 ‘조선문학’ 전공자로서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운동을 전개하였다.<sup>2)</sup> 하지만 이제까지 그러한 강좌의 담당교수가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논의된 바가 없다는 사실은 희한하기까지 할 정도이다.<sup>3)</sup>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다카하시를 주로 조선유학연구자로서 평가해왔다. 일찍이 유사순은 “한국유학에 남긴 다카하시 토오루의 곡해적 오류”<sup>4)</sup>를 바로 잡기 위해 집필했다는 논문에서 그를 “제국주의적·어용학자의 표본적 견해의 성격”<sup>5)</sup>을 지닌 인물로 비판하였다. 한국 유학의 연구사에서 다카하시가 차지하는 위치는 최근 새롭게 그것을 정리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영성은 다카하시의 조선 유학에 관한 연구가 해방 이후 한국유학사의 양대 통사적 저술인 현상윤의 『조선유학사』(민중서관, 1949)나 이병도의 『한국유학사』(아세아문화사, 1987)의 서술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였

---

회), 崔時騫, 吉川万壽雄(奈良)(8회), 김사엽, 오영진, 이재수(9회), 若松寬(岐阜), 고정옥(10회), 신구현(11회) 등이 졸업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일본인의 존재이다. ‘조선문학’ 강좌 출신자의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이렇다.(팔호 안은 일본인의 수) 1929년 1명/ 1930년 1명/ 1931년 2명/ 1932년 0명/ 1933년 1명/ 1934년 1명/ 1935년 2명/ 1936년 6명/ 1937년 2명(1명)/ 1938년 3명/ 1939년 2명(1명)/ 1940년 1명/ 1941년 0명.

- 2) 경성제대 조선인 출신자들의 자기동일성과 관련해서는 잡지 『新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박광현의 논문 「경성제대와 ‘신흥」(『한국문학연구』 26집, 2003.12)을 참조.
- 3) 이 글에 앞서 필자는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연구-타카하시 토오루를 중심으로」(『한국어문학연구』 41집, 2003)를 발표한 바 있다. 그 논문에서는 다카하시의 ‘조선문학’에 대한 다카하시와 조운제의 구상 사이의 차이와 동일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조운제의 시가사(특히 『朝鮮詩歌史綱』)의 방법이 일본 식민지주의가 마련한 토양에서 배양된 민족주의에 기초한 것이지만, ‘제국’으로부터의 이탈과 차이를 모색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거기에 조운제의 ‘조선문학’(사)에 관한 구상과 도전의 이념적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 4) 尹絲淳, 1976, 「高橋亨의 韓國儒學觀 檢討」, 『韓國學』 제12호, 중앙대학교한국학연구소, 17면. 최근 다카하시의 유학 관련 글들을 번역하고 해설한 조남호의 『조선의 유학』(조합공동체 소나무, 1999)에서도 그가 “조선의 유학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7면)라는 점에 주목하고 “주리·주기론이라는 다카하시의 도식”(20면)을 비판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남호는 다카하시의 조선불교연구에 관해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조선불교연구」(『韓國思想과 文化』, 제20호, 2003)에 발표한 바 있다.
- 5) 유사순, 위의 논문, 21면.

다.<sup>6)</sup> 이렇게 조선유학에 관한 다카하시의 연구가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간 학계에서는 그가 조선에서 제도로서 창조된 ‘조선문학’이라는 강좌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왔는지 모른다. 이 글에서는 ‘조선문학’이라는 학과 제도의 성립과 동시에 다카하시가 그곳에 첫 교수로 부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한 그 후 학과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자 한다. 그는 1926년 경성제대가 개교한 이후 ‘조선문학’ 강좌의 교수로 부임해 1939년 퇴임할 때까지, 아니 퇴임한 후에도 명예교수로서 이 강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 그에게 ‘조선문학’이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다카하시가 언제부터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상을 구축했는지, 또한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를 언제부터 어떻게 ‘조선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런 일련의 내용을 밝혀가는 가운데 다카하시 도오루가 구상했던 조선문학의 범주와 그 한계가 실제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학’의 출발

다카하시는 1905년에 학부의 학정참여관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sup>7)</sup>의 후임으로 조선에 건너왔다.<sup>8)</sup> 한일합방 후에는 경성고등보통학교의 교유를 거쳐 대

6) 최영성, 1997, 『韓國儒學思想史』5, 아세아문화사, 241면. 실제, 다카하시의 독립 직후 발행된 현상윤(1949)의 『朝鮮儒學史』(민중서관)에 대한 서평을 남겼는데, 그 글에서 현상윤의 저서가 자신의 논문 『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2部論文集』, 1929. 9)과 구성면에서 동일함을 지적하면서 영향관계를 논한 바 있다(朝鮮學會, 『朝鮮學報』 3집, 1952. 186면). 조남호는 다카하시의 서평에 주를 달아 현상윤의 논저와 다카하시의 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조남호, 앞의 책, 363면~371면, 참조).

7) 幣原坦에 관해서는 이하의 논문을 참조. 최혜주(1998), 『시데하라(幣原坦)의 顧問活動과 한국사연구』, 『國史館論叢』 제79집, 稻葉繼雄(2006), 『구한말교육과 일본인』, 홍준기 옮김, 온누리. 小澤有作(1974), 『幣原坦論序說—植民地教育指導者の足跡と思想—』, 『海峽』. 馬越徹(1988), 『漢城時代の幣原坦—日本人お雇い教師の先驅け—』, 『國立教育研究所紀要』115. 시노하라의 조선에서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구한국 정부가 그를 초빙한 배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 “敎部所管中學校敎師 幣原坦이 本部參與官으로 轉聘 聘 代에 日本人 高橋亨을 行

구고등보통학교의 교장, 경성전수학교/경성법학전문학교의 교수, ‘조선제국대학창설위원회’ 간사에 이르는, 조선의 근대 관학교육의 성립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육행정가였다. 그런 그가 조선 ‘구제(舊制) 조사<sup>9)</sup>’를 참여한 것은 한일합방 직후 당시 학무국장인 세키야 데이사부로(關屋貞三郎)의 천거에 의해 총독부의 촉탁으로 ‘조선도서조사’를 하면서부터였다. 규장각 도서를 조사하여 정만조와 함께 『조선도서해제』를 작성하는데, 이때 조선유학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한 관심의 결과는 그의 대표적인 연구업적 중 하나인 『朝鮮儒學大觀』<sup>10)</sup>의 집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1년 사고(史庫) 조사를 위해 강원도 오대산의 월정사로 떠나 영감암(靈鑑庵)에 보름간 기거하면서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에도 뜻을 두게 된다. 원래 “고려조의 서적을 찾기 위해 떠난 답사였지만, 이때의 조사 결과는 조선 불교에 관해 새로운 연구의 가능성을 제기한 『朝鮮의佛教に對する新研究』라는 논문으로 발표된다.”<sup>11)</sup>

다카하시는 조선으로 건너온 지 13년이 되는 시점에 “불과 3년을 빼고는 조선 가옥에 살았다”<sup>12)</sup>고 할 만큼 일찍부터 재조(在朝)에 방점을 둔 일본인으로서 삶의 태도를 취했다. 그 안에 식민지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엑조티시즘적 사고가 내재해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런 그의 인식 태도는 일찍부터 조선의 언어와 풍속에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조선에 건너와 6년 만에 “대화의 자유를 얻었다”<sup>13)</sup>는 그는 “이제는 거의 한어법의 조직체를 捕捉할 수 있

---

將延聘이옵기 合同請議書를 繕交호오니 照亮聯署繳交호시와 以便請議케 호심을 爲要. 學部大臣 李載克 外部大臣 李夏榮 閣下 大臣 協辦 局長 課長 光武九年二月二十五日 接第六號 光武九年二月二十五日發 光武九年二月二十七日到 秘” (<http://www.koreanhistory.or.kr/index.jsp>)

- 9) 이 글에서 ‘舊制’조사 혹은 ‘舊慣制’ 조사라는 용어는 일본이 조선 ‘합병’ 후 줄곧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조사 사업을 다카하시 등 식민지 학무관료들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 점을 일러둔다.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및 범주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朝鮮舊慣制度調査』(1938)를 참조.
- 10) 『朝鮮及滿洲』 1912. 4~6/1912. 9, 11, 12월호 연재.
- 11) 『朝鮮及滿洲』, 1912. 10. 그때 답사의 원래 취지는 조선 건국 초 묘향산으로 옮겨진 고려조의 서적이 다시금 임진왜란 후인 선조 때 오대산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만약 그렇다면 오대산 서고에 고려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 그 자료를 찾기 위함이었다.
- 12) 高橋亨, 『朝鮮人』, 『日本社會學院年報』4권(1916년 3, 4, 5 합병호), 87면.
- 13) 高橋亨, 1909, 『自序』, 『韓語文典』, 博文館. 실제 그의 조선어 실력이 대단히 뛰어

을 것 같다”는 자신감으로 첫 저서 『韓語文典』(博文館, 1909)을 출판한다. “한국은 삼천년의 구국(舊國)이지만 아직 자국어의 격법(格法)을 연구하여 그것을 조직한 자 없다”는 연구의 의의를 주장한 이 책에서, 함방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한(對韓) 경영은 정부가 주력하고 시대는 점차 흘러 비야흐로 ‘혼일체’로서의 국민이 들고 일어나 종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데, 그 국민적 경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제적 교익(交益)”과 “일한 언어의 교환”이라며 언어의 중요성을 피력한다.<sup>14)</sup>

도쿄(東京)제대 한문학과 출신다운 한문 소양은 물론 조선에 건너와 익힌 조선어 능력은 다카하시에게 조선에 대한 그 나름의 본질주의적 인식을 주조하는 데 유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러한 본질주의적 인식은 조선인의 정신세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데도 구사되었다. 초기 그는 ‘사회관찰자’의 입장을 즐긴 유지하며 조선에 대한 ‘조사’에 임했다. 『朝鮮物語集附俚諺』(日韓書房, 1910)도 그 중 중요한 결과물의 하나인데, 그는 이 ‘조사’의 목적인 즉, ①“‘사회관찰자’는 있는 그대로의 생활 중에서 움직일 수 없는 풍속습관의 특색을 인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②“풍속습관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정신을 간파하고, 그 사회를 통제하는바 이상에 귀납”되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사회연구가 가능”한 점, ③“위정자나

---

났다는 여러 진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경성제대 졸업생인 申奭鎬는 “다카하시 교수는 우리말을 썩 잘했지만, 곧잘 조선인을 멸시하는 통에 질색이었다”(李忠雨, 1980, 『京城帝國大學』, 다락원, 110면)고 했고, 또 경성제대의 교수들과 함께 그에게 조선어 회화를 배운 바 있는 高木市之助는 고등보통학교의 교장 시절에 다카하시는 교정 훈시에 일절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조선어 회화에 堪能’하였다고 회고하였다.(高木市之助, 1967, 『國文學五十年』, 岩波書店, 145면)**

- 14) 위의 책, 『自序』. 이 책의 표제어를 ‘한문전(韓文典)’이라 하지 않고, ‘한어문전’이라 한 이유에 대해서 부언하는데, 그 이유는 ‘한문전’이라 하면 문어 문법의 의미로 여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 중 구술언어의 문법(grammar)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책은 학술적 의미 뿐만 아니라 일본인 대상의 조선어 교본으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위의 책, 『例言』) 그는 조선어 연구와 관련해 비슷한 시기에 『日韓兩語法の酷似せる一例』(『朝鮮總督府月報』, 1910. 2월호)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글 또한 『朝鮮總督府月報』라는 지면의 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기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자의 경영 시설에도 크게 공헌할 것” 등을 내세웠다.<sup>15)</sup> 일본 고유의 서사 장르명인 모노가타리(物語, 민담 및 전설)로 분류된 총 28편과 속담 547편을 수록한 이 책은 그것을 채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 특유의 제도 및 지리와 풍속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곳곳에서 “지금은 옛날(今は昔)”로 시작하는 모노가타리의 형식과 “이 나라(この國)”라는 어법으로 주석을 달고 있는 형식은 조선 및 조선인을 과거=현재라는 식으로 파악하고 본질화하며 ‘고착성’과 ‘중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 레토릭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향후 과제를 부여하여 ①더욱 조사 범위를 넓혀 정사, 야사, 법률, 문학 및 현재의 생활 상태 등을 연구하고, ②조선과 일본의 모노가타리 그리고 ‘지나’의 모노가타리의 “氣脈”을 찾아 이언(俚諺)의 “同工異曲”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6)</sup>

다카하시의 한학의 소양과 ‘대화의 자유를 얻’은 조선어 능력, 그리고 도쿄 제대라는 근대학문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일본, 조선, ‘지나’를 비교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카하시의 그러한 방법은 실천 상에 큰 오류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컨대 그의 논의 속에는 일본과 ‘지나’의 관계뿐 아니라 그 각각에 대해서 전혀 논한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 아직 자신의 논의 속에 거론된 바 없는 일본과 ‘지나’, 그에게 이것들은 오로지 조선을 대상화하기 위한 ‘균질적이고 본질적인 항수’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그 두 ‘균질적이고 본질적인 항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성은 논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들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 속에서 조선(인)의 미래를 규정하는 배후의 역학으로 가정되고 있다. 그래서 『朝鮮物語集附俚諺』에 수록된 ‘이

15) 高橋亨, 1910, 『序』, 『朝鮮物語集附俚諺』, 日韓書房. 이 책의 발행일이 1910년 9월 1일이라는 사실은 한일합방이 1910년 8월 29일이므로 매우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변소의 불결함에 대해 주석을 달면서, “한인과 雜居하는 일본인의 곤란함, 끝내는 그 곤란함을 타개하여 오늘날 거류지의 기초를 다진 先鋒渡韓者の 능력(效)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81면)고 식민의 성공을 평가한다거나, “내만을 엿보는” 것에 대한 풍속의 차이 등을 예시하면서 “일한인의 융화에 해를 입히는 일이 많다”(49면)는 등 ‘내선융화’를 위해 조선 거주 내지인에게 필요한 조선 풍속에 대해, 그 지식을 전달하려는 사명감은 그런 상징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16) 高橋亨, 1910, 『朝鮮物語集附俚諺』, 日韓書房, 31면.

인’ 중 “개꼬리 삼년 묵혀도 황모 못된다”<sup>17)</sup>는 첫 속담이 상징하듯 조선(인)의 본질을 ‘지나’=과거에 대한 ‘고착성’으로 강조하면서도, 향후=미래 조선(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中性 민족’인지, 아니면 일본인과 동일한 性情을 띠는 것인지, 또는 구(舊)조선인이나 일본인이 아닌 신(新)조선인일지는 훗날 학자들이 연구할 바라며 글을 맺고 있는 것이다.<sup>18)</sup>

다카하시의 그러한 인식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논문이 바로 「朝鮮人」이다. 이 논문은 그가 조선 혹은 조선인에 대한 ‘조사’ 사업을 진행한 후 그 정보를 공식적으로 ‘내지’의 아카데미에 처음 발표했다는 것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그보다 필자는 그 안에 조선(인)에 관한 각 분과의 정보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이 논문에서부터 그는 조선문학 연구자라는 위치에 자신을 놓으려는 의식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 「朝鮮人」이라는 논문의 목적은 조선인의 ‘민족적 특성’을 살피는 데 있어, 민족을 “하나의 ‘생물’로 보고 그 일체의 기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있었다.<sup>19)</sup> 물론 여기서도 ‘균질적 존재’로서의 ‘우리 일본’이 등장하며 그것에 대해서 조선(인)의 ‘현저한 특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sup>20)</sup> 그러면서 그는 조선학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분과를 제시하는데, “사상 및 신앙(즉 문학, 철학, 종교)”, 그리고 자신으로서는 ‘문외한’인 인종학, 고고학, 지질학, 미술사 등을 제시한다.<sup>21)</sup> 그 연구 내용을 보면,

- ① 정적 방면-1) 지리적 2) 지질적 3) 인종적 4) 언어적
- ② 동적 방면-5) 사회적 6) 역사적 7) 정치적 8) 문학적 및 미술적 9) 철학적 10) 종교적 11) 풍속습관(俚諺物語) 등 총 11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①과 ②는 각각 “생활적 활동의 기초”와 “생활적 활동의 성적”의

17) 원문은 “犬の尾は三年立ても黄毛にはならぬ”이다.(209면) 이것은 다카하시가 조선에 대해 품고 있는 본질주의적 사고의 상징적 속담이라고 생각한다.

18) 高橋亨, 「朝鮮人」, 『日本社會學院年報』4권(1916년 3, 4, 5 합병호), 87면.

19) 위의 논문, 「總說」, 1면.

20) 위의 논문, 2면.

21) 위의 논문, 1면~2면. 기준에 자신이 연구해온 문학, 철학, 종교는 “민족의 근본”에서 발생하여 현재 조선인의 “정신 현상의 원동력”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측정 지표라고 말한다.

조선 역사 중 가장 긴 연대는 ‘지나’의 속국이었던 시대로 “이는 지리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리 혹은 환경 결정론적 시각을 고수한다.<sup>22)</sup>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조선(인)은 ①“조선역사는 독립적 국가의 역사로서 가치 없음”(9면) ②조선 행정은 실치자의 양심과 이해심으로 판단되니 필경 制셔도 “空文”(10면) ③조선의 문학은 미술과 함께 “빈약”(13면) ④“조선의 철학에는 진보나 발달 없이 애초부터 화석”(14면) ⑤“종교는 철학, 문학과 마찬가지로 독창적 성질 결여”(15면) 등의 이유로, ⑥오늘날 세계 중 가장 낮은 풍속 습관을 유지하는 인민”(17면)이 되었다고 단정한다. 『총론』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놓고 모든 방면에 “권위적 연구 성과”가 부재(6면)하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연구의 시급성을 주장한다.

다카하시는 이 논문을 ‘내지’의 민간 저널이 아닌 『日本社會學院年報』이라는 아카데미즘 저널에 발표하면서 “종래 조선의 사상 및 신앙, 즉 문학과 철학과 종교 연구에 종사”(1면~2면)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자신의 연구 대상이 조선의 ‘사상 및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 분과가 바로 조선의 ‘문학과 철학과 종교’임을 부연하면서 ‘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 그 둘을 등가화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사상과 신앙’의 역사와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문학’, ‘철학’, ‘종교(학)’ 등의 분과를 종합적인 방법으로서 채택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때 결과적으로는 그가 경성제대의 한 학과였던 ‘조선문학’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 가지 ‘학과’를 구분하려는 의식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앞서 『帝國文學』이라는 저널에 『韓國の俚諺』(1910)이라는 글을 발표하긴 했지만,<sup>23)</sup> 그것은 「朝鮮人」에서 보여준, 연구자로서 적어도 ‘조선문학’과 관련한 자기규정(self-identify)이나 글 자체의 질적·양적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조선의 ‘문학과 철학과 종교’에 관한 연구자라고 자기를 규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식민통치상 필요했던

22) 위의 논문, 4면. 이하 면수로만 표기한다.

23) 그후 「朝鮮の白丁」은 『日本社會學院年報』6-1(1918)에, 그리고 「朝鮮に於ける儒教」은 『斯文』(1913. 4)에 발표한다.

‘조사’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기 학문세계에 사명감을 부여한다. 즉, 앞선 시기의 조선어 및 조선의 민담에 관한 연구가 개인적인 ‘관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이때부터는 식민지에서 본국으로 발신하는, 통치상 필요한 조선연구의 성격을 띤 연구물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 3. ‘조선문학’ 연구자로서의 자기규정

#### 1) 사상과 종교-타자에 대한 불가지(不可知)함을 향한 욕망

다카하시는 조선사상사대계라는 방대한 분량의 집필을 구상한다. 그 구상은 조선의 유학과 불교, 그리고 특유종교의 3부로 구성되었는데, 그와 관련해 구상한 바를 『조선사상사대계서언』(이하, 『서언』)이라는 항목을 특별히 목차의 맨 앞에 두고 있다. 그 구상의 제1권으로서 1929년 2월에 출판한 것이 바로 『이조불교』이다. 그 『서언』을 통해 그가 구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서언』의 뒤를 이어 『이조불교서설』이 따르는데, 거기에서 조선불교는 “자연적·인문적 관계” 때문에 “지나 불교의 일분과”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이조불교는 조선불교사 중 일종의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그 연구는 우리에게 신선한 학적 흥미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이 아닌 ‘李朝’라고 한 제목의 취지를 부연한다.<sup>24)</sup>

『이조불교』가 발간되는 1929년이면 이미 다카하시는 경성제대에 부임한 후 ‘조선어학조선문학’(이하, ‘조선문학’) 제1강좌의 담당교수로서 재직 중이었다. 그 시점에 다카하시는 『이조불교』에서 그때까지 자신의 학문적 이력에 대해서 “한어의 학습에 종사”하여 3년이 지난 후 “한어의 文典을 조직”함과 동시에

24) 高橋亨, 1929, 『李朝佛敎』, 寶文館, 3면. 어찌 보면 이 책은 1919년 박사학위청구 논문(이하,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朝鮮の敎化と敎政』을 통해 이미 구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종교와 사상, 그리고 그 정책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服部宇之吉, 建部遜吾, 白鳥庫吉, 高楠順次郎이었다. 필자가 아직 이 학위논문을 읽지 못한 상태여서 『李朝佛敎』와 내용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朝鮮敎育研究會雜誌』(1920. 3)에 실린 심사보고 내용과 거기에서 기술된 그 목차를 통해 관계의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朝鮮敎育研究會, 『朝鮮敎育研究會雜誌』, 1920. 3. 62면~63면, 참조)

“韓人の 풍속습관의 조사에 착수”했고, “총독부로부터 조선구관조사의 촉탁을 받아 학교사무 외에 취조국에 나아가”(8면) “일찍이 조선연구에 취미를 갖기 시작하여 점차 광의의 조선문학을 연구할 뜻을 세웠다.”(1면, 강조-인용자)고 하며 ‘조선연구’와 ‘조선문학연구’를 구분하였다. 그가 ‘조선문학’ 강좌의 담당 교수의 신분에서 문학연구를 ‘본업’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본업’이라는 문학연구”(2면, 강조-인용자)는 문헌자료를 얻기 힘들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 때문에 조선문학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한다.

다카하시가 조선연구에 취미를 갖기 시작한 후 그 동안의 성과, 즉 조선의 교육사<sup>25)</sup>와 앞서 언급한 초기 유교 및 불교에 관한 연구물 중에는 이와 같이 ‘조선문학’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문학연구자로서 자기상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인』(1917)에서 “나의 연구” 영역을 ‘문학, 철학, 종교’를 아우르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문학연구의 현황에 대해서는 “언문으로 써어진 문학이 없으며, 언문의 기원법칙을 연구한 학자가 없다”<sup>26)</sup>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언문’은 “조선의 문학사나 사상사에서는 그 어떤 중요한 가치가 없으며 단지 한문만 읽을 수 있다면 그저 조선의 문학 및 철학은 거의 유감없이 연구할 수 있다”<sup>27)</sup> 즉 자신에게 조선이라는 대상은 불가지(不可知)

25) 다카하시의 초기에 조선교육사와 관련해서 『李朝の科擧に就て』(『朝鮮總督府月報』, 1910. 6), 『朝鮮人の教育態に就て』(위의 책, 1910. 11), 『朝鮮の教育制度略史』(조선총독부 학무국 간행, 1911) 등과 같은 글을 쓴 바 있다.

26) 高橋亨, 『朝鮮人』, 『日本社會學院年報』4권(1916년 3, 4, 5 합번호), 31면.

27) 위의 논문, 같은 면. 이런 다카하시의 폭력적 언술에 대해서는 조선어학 연구자로서 ‘조선문학’ 제2강좌를 담당하는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911년에 조선에 건너온 오쿠라는 총독부의 일원으로서 사무를 볼 때는 조선어가 전혀 필요 없었으며, 학문상 필요했던 자신의 조선어도 실제 사회에서 쓰이는 ‘생생한’ 조선어가 아니라 “탁상 위의 조선어”라고 말한다. 그렇게 그는 관료와 학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어에 관해서 풍부한 지식과 어휘를 알고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 적지 않은 헨디캡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103면) 자신의 수업을 듣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자기 최고 업적인 “‘향가 연구’와 같은 것은 본래 너희들의 것”이라고 고백하곤 했다고 한다. (117면~118면) 이상의 인용은 小倉進平, 1981, 『郷歌・吏讀の問題を繞りて』(1931), 『小倉進平博士著作集』(二), 京都大學國文學會刊, 대학사)

할 것이 없다는 오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식민자가 식민지 혹은 식민지민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지적 권위’는 조선(인)을 스테레오타입화하는 지식과 식민지 권력의 결부가 단순히 학문상의 문제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3·1만세운동 이후 그 원인을 두고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조선 총독부의 실정(失政)에 대해 심한 비판이 있었을 때, 다카하시는 본국의 조선 실정(實情)에 대한 무지를 오히려 비판한다. 그러면서 ‘문화통치’의 요건은 ‘일본문화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며, “교육자가 일본인이고 피교육자가 조선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는 “내선인(內鮮人)의 문화 정도의 차이”에 기초해 차별화가 동반된 동화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28)</sup> 요컨대 그것은 주로 당시 이슈화되었던 조선의 자치주의에 대해 강렬히 비판한 것이었으며, 그는 이미 조선이 “내선 양인의 공존동치(共存同治)”<sup>29)</sup>의 공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조선인은 ‘반도’에 위축되지 말고 나아가 일본의 관계(官界)와 학술계에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20년 4월의 시점에 아직 실체도 없고 공론화되지도 않은 ‘조선대학총장’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 더 나아가 그해 10월에는 교육개혁을 요구하며 조선에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거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대학의 성격을 ‘교화’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 및 학문을 ‘선교’·‘포교’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이러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져, “불교철학, 불교문학 등 불교문화를 비천(丕闡)하고 교수하는 종교대학을 경성에 일으켜 여기에 내선학생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까지 이어진다.<sup>30)</sup> 이렇듯 그는 대학과 종교, 작게는 학술과 선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식민지 관료 중 누구보다 일찍 조선에서의 초기 대학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문 영역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28) “조선통치의 이상으로서 조선인과의 조화를 말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공론으로서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이론으로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중략- 절대적인 동화는 조선어가 멸하고 풍속과 습관이 비변(丕變)하고 성명까지도 일본풍이 된 후에 비로소 가능”(高橋亨, 1920, 『朝鮮人國家觀念の變遷』, 『太陽』 4월호, 120면)하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29) 高橋亨, 위의 글, 121면.

30) 高橋亨, 1920, 『朝鮮改造の根本問題』, 『太陽』 10월호, 58면.

식민지 관료이자 교육행정가라는 경험과 더불어 박사학위논문 『朝鮮の敎化と敎政』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광의의 조선문학’ 관계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함으로써 경성제대 창립위원장인 핫토리 우노키치에 의해 창립위원회의 간사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31)</sup>

## 2) 『朝鮮史講座』와 다카하시 도오루의 관심

『이조불교』를 통해 다카하시는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조선사상사는 새롭게 우리 일본의 학도에게 전하는 일대 연구대상”<sup>32)</sup>이라고 주장하며 ‘내지’의 아카데미즘을 향해 발화하는 조선사상사가의 대표의 자리에 자기를 위치시킨다. 그러한 자기인식은 조선사상사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해 다카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비판적인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선연구를 ‘창시적’이며 심지어 ‘전도를 밝히는 빛’이라고 자임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어 학술 내지는 조선인에 의한 학술 활동을 폄하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sup>33)</sup> 그는 과거 조선의 지배층은 “유자(儒者)와 유학자의 구별이 없고, 유교와 유학의 구별이 없다”<sup>34)</sup>고 비판하고 자신이 비로소 그것을 구분하여 학문의 대상으로 인식했음을 주장했다. 실제 그는 일찍이 1912년에 발표한 『朝鮮儒學大觀』<sup>35)</sup>부터 유학=연구=‘지나철학’=지나의 philosophy(對)유교=신앙=

31) 조남호는 다카하시가 “대학창설위원회 간사가 되어 조선에 유학의 뿌리가 깊고 장로격의 학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핫토리 우노키치 같은 학문과 행정에 뛰어난 사람을 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조선 총독에게 건의하여 실현”시켰다고 한다.(다카하시 도오루, 1999, 『조선의 유학』, 조남호 옮김, 조합공동체 소나무, 6면) 하지만 1920년 1월에 핫토리를 비롯해 白鳥庫吉, 上田万年 등이 총리대신과 문부대신, 그리고 조선총독 등에게 건백서를 제출하고, ‘내지’ 차원에서 아니 어찌 보면 제국의 전체 차원에서 경성제대의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다카하시의 건의로 총장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또한 핫토리가 경성제대의 준비 기간 중에 교수를 임명하는 데 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당시 국문학 강좌의 교수로 임용된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介, 1967, 『國文學五十年』, 岩波書店)의 회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2) 高橋亨, 1929, 『李朝佛敎』, 寶文館, 3면.

33) 위의 책, 24면.

34) 위의 책, 17면.

유교신자를 구분하고 있다.<sup>36)</sup>

다카하시는 1921년 2월부터 약 1년간 구미를 견학했는데, 그 후일담을 『歐米漫遊所感』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sup>37)</sup> 그런데 이 글에는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시사하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구미의 학교 시찰 중에 소학교 교육부터 고등학교, 대학 예과까지의 학교 시찰 및 영국에서 식민지 정책의 연구, 특히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시찰연구, 그리고 심리학적 사회학이랄까, 사회의 심리학적 연구, 특히 구라파에서의 전후 사회의 심리학적 연구와 같은 것을 조금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sup>38)</sup>(강조, 인용자)

이때는 제2차 조선교육령(1922)의 반포를 앞두고 경성제대의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되던 때였다. 1920년에 이미 교육행정가로서 조선에서의 대학 설립과 관련해 논의를 펼치던 그가 우선 '대학 예과'를 비롯한 학교 교육 제도나 식민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심리학적 사회학'이라는 학문 분과에 대한 관심이다. 일찍이 일본 아카데미즘에 있어서 사회학 저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日本社會學院年報』에 「朝鮮人」(1917)과 「朝鮮の白丁」(1918)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그였던 만큼 '사회학'이라는 분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의 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좀더 이어진다. 1923년 5월부터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회장으로 주도한 조선사학회<sup>39)</sup>의 간행물 『조선사강좌』의 요령

35) 高橋亨, 1912, 『朝鮮儒學大觀』, 『朝鮮及滿洲』 4월호. 이 글은 이후 『朝鮮史講座』(1923-1924)를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발표된다.

36) 이러한 구분은 유교를 불교의 상대적 위치에 두고자 했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불교/신교/유교로 '조선사상사대계'를 기획했듯이, 종교나 신앙이 조선의 사상사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 사용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철학의 부재를 지적해 그것만으로 '조선인'을 규정하려 했던 것이다.

37) 이 글은 자신이 재직했던 경성중학교 동창회가 주최한 환영회에서 강연한 내용인데, 『朝鮮』(1922. 9)에 소개되었다.

38) 高橋亨, 1922, 『歐米漫遊所感』, 『朝鮮』 9월호, 70면.

39) 이 학회는 '조선사학회 동인'의 이름으로 "공정한 순학술적 연구의 견지"에서 조직되었음을 『朝鮮史講座創刊の辭』를 통해 밝히면서 1년 예정으로 『朝鮮史講座』를 공간한다. 특히 1년이 지난 시점에 회원 수가 4천명을 넘는 '성황'을 보인 가운데 학회지 발행을 3개월 더 연장한다.

호(要項號)에서 밝힌 애초의 기획에 따르면, 다카하시는 “조선사회의 성립이 가능할지”를 문제 삼고, 아직 그것을 발표하거나 시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조선사회를 집필할 예정이었다.’<sup>40)</sup> 그 동안 그에게 관심 영역이었던 ‘조선학예사’와 ‘조선불교사’는 조선인, 즉 흥희와 이능화가 각각 담당했다. 요컨대 『조선사강좌』에서 「조선사회사」를 집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미 견학을 전후로 그가 가졌던 관심 분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에서 최초로 성공한 학술잡지이자 강의록으로서 하나의 신기록을 세운 것을 독자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인사말과 더불어 10여 년 전에 이미 『朝鮮及滿洲』에 발표했던 「조선유학대관」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sup>41)</sup>

이 학회에 대해서는 주목을 요하는데, 특히 경성제대 교수진의 인적 구성과 이 학회=『조선사강좌』의 필자인 구성의 연관성, 그리고 경성제대 학과 및 강좌와 『조선사강좌』의 분과 구성의 연관성이 깊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 나아가 조선에서 학술의 생산 및 보급에 대한 책임을 자임했던 이 학회는 조선학의 각 분과마다 그 사적 기원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이 학회는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정무총감을 총재로 하고 식민지의 학적 권력 기관, 즉 중추원, 조선사편수회, 박물관, 학무국 등을 망라하여 조직된 것이었다. 당시 설립 준비 중이던 경성제대는 ‘동양문화의 권위’로서 경성제대의 사명을 주창하면서도<sup>42)</sup> 그 안에 “조선 그 자체의 연구를 위해 제국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지닌 특종의 학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서 이 학회 조직이 ‘구관제조사사업’의 성과를 배경으로 한 식민지학으로서 ‘조선학’(=각 분과의 사적 기원으로서)과 매우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40) 朝鮮史學會 편, 『朝鮮史講座』(要項號), 1923, 5.

41) 『조선의 유학』(조남호 옮김)에는 이 글이 1927년 『조선사강좌』에 연재된 것으로 주석이 달려 있으나, 이는 『朝鮮學報』(조선학회)에 수록된 「高橋亨先生著作年表」와 「高橋亨先生年譜略」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인용한 것이므로 1924년(제9호, 1924, 5) 이후 연재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42) 服部宇之吉, 1926, 『京城帝國大學始業式に於ける告辭』, 『文教の朝鮮』 6월호.

43) 服部宇之吉, 1925, 『朝鮮帝國大學の特色』, 『朝鮮地方行政』, 4월호, 4면.

44) 조선사와 관련해 ‘일반사강의’, ‘분류사강의’, ‘특별강의’의 3분류에 따라 강의를 시작한 이 강좌는 애초 계획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20명 중 6명이 경성제대 교수로 부임한다. 그 외 도쿄와 교토제대에서 각각 한 명씩 참가하였다.

그 '동인'들의 말대로 『조선사강좌』는 식민지 조선의 학술, 특히 각 분과를 대표하는 강사들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다카하시가 '사회사'라는 강좌를 애초 담당하려 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카하시 자신이 스스로를,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 그를 '광의의 문학' 연구자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조선인의 '사상과 신앙'에 대한 연구를 근간으로 조선 사회를 운영해온 '다양한 동력' 혹은 '사회활동의 핵심'을 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제로서 '사회사'를 그 스스로가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로부터도 그 분과의 담당을 의뢰받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sup>45)</sup>

### 3) 조선문학 연구자가 되다

다카하시가 『조선사강좌』에서 '조선사회사'를 구상했던 것은 1923년 7월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아 『조선유학대관』으로 연재한 것은 1924년 5월부터이다. 이때는 이미 경성제대 예과가 개교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 경성제대 본과의 학과 구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인용했듯이, 1925년 4월에 야 비로소 핫토리는 "조선 그 자체의 연구를 위해 제국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지닌 특종의 학부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sup>46)</sup> 적어도 핫토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제한다면, '조선학부'라는 특별한 구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1926년 개교 당시 학부는 법학부와 문학부를 결합한 법문학부와 의학부의 두 학부 체제로 시작되는데, 그 중에서 법문학부에는 법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등 네 학과를 설치하였고 각 학과 안에는 몇 개씩 전공을 두었다. 그 중 문학과에는 1926년 현재 '조선어학조선문학' 제1강좌, 제2강좌를 비롯해, '국어학국문학', '지나어학지나문학', '외국어학외국문학'이 각각 한 강좌씩 총 5강좌가 개설되었다. '조선문학' 제1, 2강좌는 식민지 대학의 성격에 조응하는 '조선 그 자체의 연구'를 위한 '특종(特種)의 학부'라는 배려에 따라서 개설된 것이다. 사학과도 '국사학'=일본사학 강좌, 조선사학 제1, 2 강좌, 동양사학 강좌로 출발하였다.<sup>47)</sup> 다시 말해 총23개의 개설 강좌 중 식

45) 朝鮮史學會 편, 『朝鮮史講座』(要項號), 1923. 7, 13면.

46) 服部宇之吉, 1925, 『朝鮮帝國大學の特色』, 『朝鮮地方行政』 4월호, 4면.

47) 1928년부터 가네코 고스케(金子光介)의 서양사학이 강좌로서 존재했지만, 전공

민지 본국의 제국대학에는 없는 ‘조선어학조선문학’과 ‘조선사학’만이 제1, 제2 강좌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핫토리외의 구상이 단순히 공연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문학’ 강좌에 대한 담당교수의 임용 기준은 무엇이였을까. 그 대답은 우선 왜 경성제대에 ‘조선문학’ 강좌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서 구해야 할 것이겠지만, 그것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어 여기서는 부언하지 않겠다.<sup>48)</sup> 따라서 경성제대에 ‘조선문학’ 강좌가 필요하다는 당위 위에 그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문제로 좁혀질 것이다. 식민지 학술을 대표한다고 자임했던 조선사학회의 『조선사강좌』 중에서 굳이 ‘조선문학’이라는 분과를 지적하자면 홍희의 ‘조선학예사’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정확히 말해 ‘조선문학’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쨌든 당시는 자기동일성을 지닌 민족을 증명하기 위해 조선인 스스로가 조선문학을 범주화하기 시작한 때였다. 여기서 그의 임용에 ‘국어’=일본어 학술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작용했음을 추측 가능하게 한다.

가령 『조선사강좌』에서 홍희의 논문이나 이능화의 논문이 아래와 같은 표기법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ニ於ケル ノ ト ノ セル ハ實ニ ニシテ  
朝鮮에 學藝의 源流와 其의 隆替된 沿革이 참 久遠히며<sup>49)</sup>

인쇄언어의 측면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점을 보인다. 『조선사강좌』에 참가한

으로 설치되지 않아 전공자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경성제대 사학과가 조선 특유의 3분과 체제를 유지했던 것과 관련해 ‘동양사학’을 테마로 다룬 박광현의 『경성제국대학 안의 ‘동양사학’』(『한국사상과 문화』 제31집, 2005, 12) 참조.

48)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를 ‘언어적 민족주의’와 관련해 고찰한 박광현의 「언어적 민족주의의 형성에 관한 재고」(『한국문학연구』23호, 2000.12), 조선문학 강좌의 성격을 다카하시와 조윤제 사이의 관계를 통해 고찰한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연구-타카하시 토오루를 중심으로」41호, (『한국어문연구』2003.8), 그리고 문학 전체 강좌 속에서 ‘국문학’ 강좌와 비교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인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일본학보』59호, 2004.6)를 참조할 것.

49) 홍희, 『朝鮮學藝史』, 『朝鮮史講座』, 1923, 9, 147면.

두 조선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른바 ‘국한문혼용체’였다. 하지만 한자 이외의 조선문에는 일본어 번역의 가나(仮名) 문자를 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문과 조선문이 혼합된 표기는 학술상에 있어서 첫 시도였다. 그것은 이 잡지가 ‘국어=일본어’를 사용하는 ‘국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학회는 그 ‘언문’=조선문이 ‘국민’의 범위에서 소통 가능케 하기 위한 기획으로서 조선문의 가나화를 의도했으며, 그것을 전제로 조선인의 참가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학회가 내세운 “공정한 순학술적 연구”라는 의미도 조선학이 ‘국민’의 학(學)=지(知)가 될 수 있다는 의미 가운데 강제되는 것이라는 점은 그래서 너무도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0)</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조선문학’의 강좌 교수로 다카하시 도오루를 임용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사실 그런 의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1927년에 다카하시는 이제껏 그가 써온 논문 중에서는 보기 드문 『朝鮮文學研究』<sup>51)</sup>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굳이 “내가 취급하고 있는 조선문학”이라는 말로 부연하여 ‘조선문학’의 범주를 제시한다. 우선 그 스스로가 “취급하고 있는 조선문학”의 시대적인 범주는 “현대 일본 및 서양 문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대”라고 하고, 그 대상은 “시문가요의 순문학은 물론이고, 고래 조선인의 사상 및 신앙을 표현한 유학 및 불교에 관한 모든 저술, 조선인의 이상적 생활과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한 모노가타리(物語), 비사(秘史), 소설류 등을 총괄하는”<sup>52)</sup> “일체의 문학적 산물”(강조 인용자)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다카하시는 조선문학의 개념을 스스로가 “취급하고 있는 조선문학”이라고

50) 더욱 흥미로운 것은, 경성제대의 개교 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1930년에 “사학을 중심으로 한 반도문화의 연구 기관”으로서 창립하는 청구학회가 학회지 『靑丘學叢』을 발간하면서 거기에도 동참한 홍희와 이능화는 모두 순한문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1923, 4년의 『朝鮮史講座』와 1930년 8월 『靑丘學叢』의 사이에는 경성제대의 개교와 또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홍희나 이능화가 두 학술지에서 표기법을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성제대의 개교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학술적 지형이 변화한 것이라고 보고 싶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른 논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51) 高橋亨, 1927, 『朝鮮文學研究—朝鮮の小説—』, 『日本文學講座』第12卷, 新潮社.

52) 위의 논문, 1면.

한정=변명하고 시대적 범주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이 연구해온 조선의 불교와 유교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일단 조선근대문학의 성립과정은 배제시키고, 과거 ‘문학적’ 범주에서 문화적 고착성과 종속성이라는 ‘현저한 민족성’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조선문학은 그의 말대로 광의의 범주에서 조선성, 즉 조선의 민족성을 밝히는 학문으로서 위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조선의 종속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스스로의 조선문학 인식에 대한 경성제대 안팎의 비판과, 경성제대 출신의 조선인에 의한 새로운 문학연구의 동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미 언문을 혼용한 조선문체에 의해서 어떠한 학술도 문학도 자유롭고 완전하게 표사(表寫)할 수 있는”<sup>53)</sup> 조선문학의 현황을 뒤에서 서술하며 자신의 조선문학연구가 지닌 가능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것은 향후 ‘여러 분화적 가능성’에 있으며, ‘향토적 연구’가 개척되면 ‘종교연구’도 한 분과로서 성립할 것이라며, 주위의 비판에 대비하여 우회적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자인하였다. 그리고 ‘지나와 인도, 서장(西藏), 몽고, 만주, 일본’ 등 주변지역의 ‘문학적’ 것과 ‘비교연구’가 이뤄지면 그것도 하나의 분과가 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sup>54)</sup> 요컨대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적 연구’의 범주는 바로 ‘분화’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문학적 연구’를 언급했을 때, 그 자신도 그것과 문학연구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문학적 연구’는 ‘분화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문학연구로서 성립한다는 뜻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문학’ 전공의 출신자들 즉 조운제(1회), 김재철, 이재욱(이상 3회) 등에 의해 실천되었던 조선문학연구는 ‘분화의 가능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졸업논문으로 『朝鮮小說의 研究』, 『朝鮮古代演劇의 概觀』, 『嶺南民謠의 研究』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조선 최초의 어문학 전공 학술조직인 조선어문학회의 주요 멤버들이다. 조선어문학회의 『회보』에서는 시가, 소설, 민요, 연극 등 조선문학의 다양한 장르연구가 이미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조직 안에는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의 서두수(2회)와 ‘지나문학’ 전공의 김태준(3

53) 위의 논문, 11면.

54) 위의 논문, 2면.

회) 등도 참가하였다. 이 학회에서는 조선문학의 장르연구=‘분화’를 실천하여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김태준의 『조선한문학사』와 『조선소설사』 등을 단행본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특히, 다카하시의 『朝鮮文學研究』가 일본의 시대별 문학사를 비롯해 각 장르연구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당대 대표적인 필자들에게 의해 19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편찬된 『日本文學講座』에 발표된 논문이라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기획의 총괄자인 도쿄제대 후지무라 쓰쿠루(藤村作)는 ‘국문학’은 “우리 일본국민에게 생명의 도량이자 힘”이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총론을 쓴다. 그러면서 E. 르낭을 상기시키는 듯한 “피는 특수한 민족성을 만들고 민족정신을 만들며, 이 민족성과 민족정신은 유형 또는 무형으로 국가를 형성한다”는 주장을 펼친다.<sup>55)</sup> 그리고 ‘제국’(대학)의 學知를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일본문학을 범주화한 이 기획에는 일본문학의 기원에서부터 고대→나라(奈良)→헤이안(平安)→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에도(江戸)→메이지(明治) 시대까지 이르는 국민문학사는 물론, 그 중 대표적 장르 혹은 텍스트=정전에 대한 감상(14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나나 유럽문학은 물론 고고학, 방언학, 민속학 등 주변 학문과 비교문화적 관점을 취하는 논문들을 비롯해, 사회, 농민(계급), 범죄, 부인(젠더) 등의 문화사회학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논문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민문학’의 범주를 확정하고 있다. 그 기획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특수연구’라고 명명된 15권 중 일부 논문 테마의 존재로, 그것은 이하 후유(伊波普猷)의 『일본문학의 방계로서의 류큐(琉球)문학』과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의 『아이누문학연구』, 그리고 다카하시의 『조선문학연구』 등이었다.

특히 다카하시의 논문이 후지무라가 총론에서 언급한 ‘피’가 만들어낸 민족성 내지 민족정신으로는 범주화할 수 없는 너무도 이질적인=특수한 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조선문학이 제국 ‘판도’=국가(문학)의 일지방(문학)이어야 한다는 ‘당위’에 기초한 기획 의도와는

55) 藤村作, 1926, 『日本文學研究の新意義』, 『日本文學講座』제1권, 新潮社, 1면. 이 기획은 초판의 서지를 보면 1926년 11월부터 1928년 9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상이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서 다카하시가 그러한 기획 의도를 염두에 두었지만,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당시 그에게서 ‘흔들렸던 조선문학의 개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문학에 대해서 ‘특수’한 존재로서 ‘아이누문학’과 ‘류큐(琉球)문학’과 더불어 조선문학을 ‘제국’의 문학사 기술이라는 편집 의도에 따라 ‘국문학’=일본문학에 편제하려 했던 첫 시도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운제를 비롯한 경성제대 출신 조선인<sup>56)</sup>이 그에 대해 보여준 일련의 도전은 바로 ‘제국’ 문학사를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sup>57)</sup>

#### 4. ‘조선문학’ 강좌의 교수로서 다카하시 도오루

이렇듯 다카하시가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를 담당하는 바로 그 해, 공교롭게도 ‘제국’(대학)의 학지(學知)를 총동원한 『日本文學講座』의 기획이 있었다. 그때 그는 조선 및 ‘조선문학’ 연구자를 대표하여 거기에 참가했고, 거기서 그는 앞서 지적했듯이 경성제대의 ‘조선문학’ 연구의 범주 즉, 자신의 연구 범주에 대한 정의를 시도했다. 그렇다면 그 후 다카하시의 무엇을 어떻게 교수했을까. 다음은 그가 강의했던 강의명의 일부분이다.

- 1929년 조선유학사/조선문학연습
- 1930년 조선문학강독 및 연습/조선문학특수강의
- 1931년 조선사상사개설(朝鮮思想及朝鮮信仰史)/大山退溪書節要及退溪詩  
/조선민요

56) 그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주1)을 참조.

57) 특히 조운제가 훗날 스스로 ‘유치한 것’(조운제, 1988, 『陶南雜識』, 『陶南趙潤濟全集』5, 태학사, 371면)이라고 했던 졸업논문 「朝鮮小說의 研究」(1929)의 첫 장에서 ‘조선소설의 발달개관’ 즉, 소설사를 구상한 사실은 그가 언급한 ‘분화의 가능성’이 조선인 제국대학생들에게는 모방으로서보다 도전과 논쟁의 측면에서 실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운제는 이후에 『新生』(제10호)에 「조선소설발달개관」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의 증보판을 낸 후에는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조선소설사개요」라는 논문을 『文章』(제2권 제7호, 1940. 9)에 발표한다. 이와 같은 소설사에 관한 조운제의 집착은 ‘조선문학’ 강좌의 다카하시에 대한 비판을 사정에 두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 1932년 조선사상사개설/조선근대문학/조선근대문학選
- 1933년 조선사상사개설/조선상대문학/조선상대문학選 강독 및 연습/조선의 가요
- 1934년 조선사상사개설/조선상대 및 중세문학, 연습(조선상대 및 중세문학選)
- 1935년 조선문학개론/연습(東人詩話 · 조선중세문학선)
- 1936년 조선문학개론/조선에 있어서 異學派의 유학/조선도학자의 문학<sup>58)</sup>

사실 강의명만으로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대개의 내용이 한학 즉, 유학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사상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1931년 이후 한학 외에 조선의 민요나 가요 등의 강의를 개설했던 사실이 눈에 띈다. 다카하시는 경성제대에 부임한 직후부터 조선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193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조선문학 연구의 난관을 토로하며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조선의 민요에 손을 댄 지 벌써 5년이 된다. 문헌의 수집도 아직 거의 진척이 없다. …<중략>…민요의 수집은 아마도 문학적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그 가장 곤란한 것 중 하나일 것이다.”<sup>59)</sup> 그러면서 “특히 우리와 같이 조선어의 어휘적 지식이 빈약한 자에게 무척 어려운 일”<sup>60)</sup>이라고 하며 조선문학을 불가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인식적 오류에 대해서 고백한다. 이것은 단지 조선민요연구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선문학 자체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 있어 한계를 고백한 것이었다. 문헌 연구만으로 조선문학의 전체를 구성할 수 없음을 그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던 터이다. 그래서 그의 조선민요에 대한 연구는 조선문학사를 구성하는 전체상을 그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조선문학’ 강좌 담당교수로서의 책임이자 그 위치에서 행한 새로운 시도였다. 그러나 민요 수집이라는 활동만을 두고 보면, 그 시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듯하다. 그는 1929년 11월에 민요 수집을 위해 제주도를 처음 방문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결국 그 이듬해 “내 연구실의 조수 조문학사” 즉, 조운제를 따로 보내서 민요를 수집토록 했던 것이다. 그때

58) 인용은 재학생의 학적부(29년/30년)와 『靑丘學叢』의 『彙報』(31년 이후)에 실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1932년의 조선근대문학 강의명의 ‘근대’는 관학의 조선사 시대구분의 일반적 방법인 ‘上世-中世-近世-最近世’의 ‘근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일컫는다.

59) 高橋亨, 1932. 『朝鮮の民謠』, 『朝鮮』 2월호. 15면.

60) 위의 논문, 16면.

조운제는 200수 가까이 민요를 수집한다. 그것을 토대로 1931년 봄에 명륜학원에 입학한 제주 출신 이창하(李昌廈)에게 검증을 받은 후,<sup>61)</sup> 1931년과 1932년 여름에 다시 제주를 돌며 모두 300수 가까이를 수집했다. 그는 이러한 제주도 민요의 수집 과정을 회고하면서 시작되는 논문 한 편을 1933년에서야 발표하는데,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제주도의 민요가 이미 “10여 년 전 섬 사람 김모가 민요를 400여수 채집해서 중추원에 보냈”으며 그것의 일부가 『개벽』에 소개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sup>62)</sup> 같은 해에는 북조선의 민요에 관해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것 또한 자신이 직접 채록한 민요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고작 ‘북선’의 역사지리 및 인물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곳 민요의 특징을 규정하는 데 그친 것이었다. 민요 자료는 “茂山군 延社公 普 羅秉箕군, 富寧군 富居公普 村本교장, 부녕군의 李聖鎬군, 安邊군의 韓快鎬군”이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63)</sup>

다카하시의 민요 수집은 그 자신이 문헌에 치우쳐 조선문학사를 ‘상상’해왔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다시 말해 ‘조선문학’ 강좌의 담당교수로 부임한 후의 작업을 통해 조선문학의 구성에 대해 새롭게 논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하시는 1936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부민관에서 열린 경성제대 문학회 주최의 공개강연회, 즉 ‘조선문화공개강좌’의 두 번째 강사로 『朝鮮의民謠』라는 주제로 강연하는데,<sup>64)</sup> “나는 쇼와 4년 이후 조선민요를 우리 학과의 전공자 제군과 협력해서 조금이나마 그 조사연구를 해왔”<sup>65)</sup>다고 하면서 조선문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 “조선문학은 그것

61) 다카하시는 1930년 4월 1일에 개원한 명륜학원의 강사를 겸직한다. 거기에서 제주도 출신의 이창하를 알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30년도)

62) 高橋亨, 1933, 『民謠に現はれた濟州の女』, 『朝鮮』 1월호.

63) 高橋亨, 1933, 『北鮮の民謠』, 『朝鮮』 8월호, 48면.

64) 이 발표문은 『朝鮮文化門外觀』(安倍能成), 『朝鮮の民俗に就いて』(秋葉隆), 『新羅史研究の近況』(末松保和), 『日・鮮・淸に亘る文化交流の一考察』(藤塚隣)와 함께 이듬해 조선공민교육회가 『朝鮮文化の研究』(1937)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65) 高橋亨, 1937. 『朝鮮の民謠』, 朝鮮公民教育會 刊, 『朝鮮文化の研究』, 105면.

을 둘로 대별할 수 있다. 즉, 한시 한문과 조선어로 씌어진 제(諸) 가요 및 모노가타리(物語)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 중에서 후자 즉, 조선어로 씌어진 조선가요 및 소설을 포함한 모노가타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조선문학이며, 그 기원에서 보더라도 한시 한문과 비교해서 훨씬 오래되었습니다.”<sup>66)</sup>

조선문학-1)한시 한문

2)a)조선어 모노가타리

b)조선어 가요-아악(雅樂)

-속가(俗歌)

-잡가(雜歌)<sup>67)</sup>

특히 잡가 중에는 이요(俚謠), 유행가, 민요 등이 있는데, 앞의 둘은 “지나의 가사와 비슷하여 지나문학에 대한 모방문학에 속”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선인의 순진한 심정을 생각나는 대로 노래한 것은 민요뿐”이라고 다카하시는 정의한다. 이때 비로소 그는 조선의 “문학적 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순수한 의미”에서 ‘조선문학’이 무엇인지를 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강연을 기록한 이 글에서 조선민요를 일본문학계에 소개할 때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 팔도’의 민요를 발췌하여 번역 소개하고 있다.<sup>68)</sup> 그가 줄곧 ‘조선문학(강좌)’의 범주로 구상해온 조선의 ‘문학적 산물’(특히 한문)은 ‘번역’ 없이 직접 소통이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조선문학, 즉 민요가 ‘의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사회문화적 컨텍스트의 차이를 인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가 보여왔던 조선에 대해 ‘불가지(不可知)’할 것이 없다는 오만과는 다른 것이었다. 조선문학 연구자로서 ‘순수한’ 조선문학의 범주를 새롭게 구상하면서 민요연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66) 위의 논문, 105면~106면. 다카하시는 한시나 한문으로 이뤄진 조선문학은 모두 모방문학이라고 단정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표에 있는 a)조선어 모노가타리 또한 “대개가 모방문학”이라고 정의한다.

67) 위의 논문, 111면~114면 참조.

68) 위의 논문, 127면. 거기에 소개된 민요를 보면 1) 모자의 애정-제주/2) 가정의 불화-경북 군위/3) 유교적 민요 a. 농부가-전남 무안/ b. 제초가-전남 순천/4) 향락주의 민요-경북 군위/5)情歌-함남 안변, 국경 강변 화전민, 압록강변 보천보 등 그야말로 전(全)조선의 민요를 선정해 보이고 있다.

그때부터 이전과는 달리 구어=조선어의 문학을 비로소 적어도 타자의 언어 세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카하시가 ‘조선문학’ 강좌를 담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강좌의 커리큘럼에 대한 비난이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성제대가 개교한 후 영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선과’(選科)에 입학했다가 중도에 그만 둔 이광수는 이렇게 비판한다.

年前 京城帝大 朝鮮文學科에서는 朝鮮文學 演習用 教科書로 擊蒙要訣을 使用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 大學 朝鮮文學科의 主任되는 某 教授의 選擇이니 가장 權威 있는 選擇이라야 할것이다. 그러나 不幸히 淺見寡聞한 나로는 擊蒙要訣이 朝鮮文學이란 말은 奇想天外로밖에는 아니들린다.<sup>69)</sup>

이 글에서 이광수가 말하는 ‘조선문학과와의 주입’이라는 ‘모 교수’는 물론 다카하시를 가리킨 것이다. 또한 이광수는 조선문학은 “조선문으로 쓴 문학이다!”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당시 경성제대 문학과와 재학생과 그 출신자들이 조직한 ‘조선어문학회’의 회원들도 이광수의 견해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 그런 비판은 경성제대의 외부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였다.<sup>70)</sup>

다카하시는 1939년 4월에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 담당의 교수직을 물러나 명예 교수직을 유지한다. 그 후 김태준이 강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데, 당시 신문에서는 ‘청년학자 김태준 씨 성대(城大) 강사에 취임, 다카하시 씨와 함께 조선문학 강좌 담당’이라는 제하로 기사를 싣고 있다. 그 강좌의 제1회 졸업생

69) 李春園, 1935, 『朝鮮文學의 概念』, 『四海公論』(제1권 제1호) 5월호, 30면.

70) 김태준, 1997, 「古典涉獵隨感」, 丁海廉편역, 『金台俊文學史論集』, 260면(<동아일보 1935. 2. 9~2. 16.>). 김태준은 이광수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며 “무엇보다 조선문학의 정확한 정의-라기보다 내포 또는 한계-에 있어서 때때로 공포전(空砲戰)을 읽은 것이 회상할수록 고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조선문학사에 관한 인식에 다카하시의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가 끼친 ‘조선문학’ 범주에 대한 영향을 노골적으로 자기비판한다. 또한 조운제도 다카하시가 사용한 텍스트를 가리켜 조선인이 한학을 수학하기 위한 ‘조선의 교과내용’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조선문학연구’가 아닌 ‘조선문학의 외곽적 연구’의 텍스트라고 비판하였다.(조운제, 1997, 『朝鮮人 著作의 教科書에 대해서』(1942.6), 『陶南趙潤濟全集』4, 태학사, 222면/227면)

인 조운제가 아니라 김태준이 그 자리에 앉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당시 명륜전문학원을 둘러싼 다카하시와 김태준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다카하시는 1930년 이후 명륜학원의 평의원으로서 강사직을 겸직하였는데, 김태준도 그 후 명륜전문학원의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그 둘의 학문적 관계는,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다카하시의 연혁에서 1939년 12월에 두 사람의 공저 『李朝文學史の研究』가 『服部公報會』에 발표되었다는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sup>71)</sup> 김태준이 강사로 부임했지만, 경성제대의 ‘조선문학’ 강좌는 이미 다카하시가 조선문학의 범주를 새롭게 모색했던 것과 달리 그 자체는 새로운 모색의 결과를 낳지 못했다.

1933년에 이미 오쿠라 신헤이가 도쿄제대의 교수를 겸임하며 조선을 떠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예속사’나 ‘선식(鮮式)한문강독’ 등을 강의했던 조선인 강사 어윤적(魚允迪)과 정만조(鄭萬朝)가 각각 1935년과 1936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도 권순구(權純九)만 강사로 채용했던 것을 비롯해, 다카하시 퇴임 후에는 김태준을 강사로, 그리고 조선어학에는 오쿠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대신해 고노 로쿠로(河野六郎)를 강사로 채용하는 등 이 강좌는 패전까지 교수가 거의 공석에 가까운 상태를 이어갔다.<sup>7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문학’ 강좌의 재적생은 주1)에서처럼 1941년까지 주로 조선인이 주를 이루며 2명에 불과했던 일본인을 포함해 꾸준히 입학했다. 이와 같은 강좌의 파행적 운영은 개교 당시 담당 교수를 핵으로 삼은 강좌제로 출발했던 경성제대의 그 어느 강좌에서도 볼 수 없는 쇠락의 과정이라고 할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어(혹은 조선인) 학술을 철저히 배제했던 경성제대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강좌를 창조했던 다카하시 도오루가 결국 민요 등과 같은 조

71) 이 논문은 아직 그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朝鮮學報』(14집)의 ‘高橋先生頌壽記念號’에 실린 그의 저작연표를 보면 미발표 저서에 『朝鮮文學史』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72) 김태준도 1년만 근무한 듯하며, 방학 중에만 조선에 건너와 집중강의를 하던 오쿠라마저 1943년에 세상을 떠난 후 河野六郎가 강사로서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러한 쇠락의 과정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한때 3강좌 체제를 유지했던 ‘국어학 국문학’ 강좌의 변화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박광현의 논문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이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 『일본학보』59호,(2004.6) 참조.

선어=구어 문학 세계를 자신이 연구할 ‘조선문학’의 범주에 편제시키면서, 그것이 적어도 ‘불가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외국문학’임을 인식하고 한계를 실감하며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것은 다카하시의 한계이자 ‘제국’문학으로 조선문학을 포섭하려는 구상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다카하시가 문학연구자로서 자기상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말해 경성제대 ‘조선문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였다. 그때부터 그는 과거 자신이 해 온 연구 성과를 문학연구의 범주로 포함시켜갔다. 다시 말해 그는 조선문학 연구자로서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의 교수로 부임된 것이 아니라, ‘조선문학’ 강좌를 담당하면서 비로소 스스로를 조선문학 전공자의 위치에 두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의 ‘문학 연구’는 애초 문학 텍스트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의 말을 빌자면 ‘광의의 문학’이었고, 조운제의 말을 빌자면 ‘외곽적’인 것에 머문 것이었으며, 그것마저도 역사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시야에서 그 내용을 구성하려는 데 그쳐 있었다. 사실 우리 국문학 연구가 문학 텍스트와 문학사라는 역사 사이에서 방법상 계속적인 혼호(混淆)와 길항을 거듭하며 형성·발전해왔던 것은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73)</sup> 그가 그 동안 불가지(不可知)할 것이 없다고 믿고 싶었던 문헌 속의 조선 혹은 조선인의 정신세계가 새롭게 조선문학의 범주를 구상하는 가운데 ‘순수한’ 조선문학 중 하나로 민요를 선택해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이전과는 달리 구어=조선어의 문학을 비로소 타자의 언어 세계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그러한 과거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정치적 자장과

73) 이종목에 따르면, 조선의 한문학 연구는 경성제대 예과 교수로 있던 多田正知에 의해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불행히도 전통시대 한문학자로부터 대학 강단에서 한문학 전통을 전수받아 이를 근대적 학문으로 탈바꿈할 시기를 갖지 못했다는 그의 지적은 식민지 시기에 있어 다카하시의 ‘조선문학’ 강좌와 한문학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중요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종목, 2005, 『일제강점기의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13, 참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향후 검토하기로 한다.

흔적으로부터 해방 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 경성제대 출신자들은 새로운 국문학사(=조선문학사) 기술을 기획하면서 그 동안의 자신들의 연구 성과가 “독학으로 일가를 이룬 보고서”<sup>74)</sup>라고 할 정도로 과거의 그 제도와 전혀 무관함을 애써 주장하였다.

다카하시가 1939년 퇴관 직후에 다시금 조선의 아카데미를 대표해 ‘내지’를 향해 발신했던 내용은 방대한 분량의 세계정신사의 기획 중에 포함된 ‘조선학술사’였다.<sup>75)</sup> 그것은 그가 ‘내지’를 향해 불교와 유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정신사의 연구자라는 자기 위치에서 발화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다카하시는 명륜전문학원 강사로 재직하다가 불교종단이 세운 해화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그때 조선문학사 혹은 조선문학의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금 유교와 불교를 비롯한 사상 및 사상사에 관해 자유롭게 발화하기 시작한다.<sup>76)</sup>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조선문학’이라는 구애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를 떠오르게 만든다.

(필자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제어 : 다카하시 도오루, 조선문학, 경성제국대학

투고일(2007.10.15), 심사시작일(2007.11.8), 심사종료일(2007.12.8)

74) 김사엽은 해방 직후 『朝鮮文學史』(正音社, 1948)의 ‘자서’에서 “조선문학이란 무엇이뇨?”라고 자문하고, 경성제대 ‘조선문학’ 강좌에서 교수받은 내용을, 특히 다카하시의 강좌를 겨냥하여, “羊頭狗肉과 같은 엉터리 교수를 생각하면 고소를 금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라고 비판하고, 위와 같이 영향관계를 전면 부정하였다(3면).

75) 高橋亨, 1941, 『朝鮮學術史』, 『世界精神史講座』7권, 理想社出版部. 전 8권으로 구성된 이 방대한 기획의 의도는 국민총동원을 목표로 동양정신과 서양정신의 이항대립화라고 할 수 있는데, 다카하시는 그에 앞서 1940년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촉탁으로서 그 단체의 기관지 『總動員』에 『時局下の朝鮮佛敎徒』(6월)과 『東洋思想と西洋思想』(8월)을 발표한 바 있다. 그것도 조선문학 연구자라는 범위를 넘어 조선 연구자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발화한 것이었다.

76) 해방 후 『朝鮮學報』(제14집)에 실린 연보에 따르면 퇴임하는 즈음에, 즉 1939년 12월에 김태준과 함께 저술한 『李朝文學史の研究』를 『服部公報會』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lt;표&gt; 『조선사강좌』 강의

1) 일반사강의																	
강의명	강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비고
상고사	小田	○	○	○	○	○	○	○	○	○	○	○	○	○	○	○	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장 경성제대 예과부장 경성제대 조선사학 교수
중세사	萩山	○	○	○			瀬野	○	○	○	○	○	○	○	○	○	총독부 도서관장 경성제대 도서관 촉탁
근세사	瀬野	○	○	○	○	○	○	○	○	○	○	○	○	○	○	○	조선사편수회 촉탁
최근세사	杉本	○	○	○	○	○	小田	○	○	○	○	○	○	○	○	○	조선총독부 증추원
조선역사 지리								大原	○	○	○	○	○	○	○	○	조선총독부 증추원 촉탁

2) 분류사강의																	
강의명	강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비고
민족사	稻葉	○	○	○	○	○	○	○	○	○	○	○	○	○	○	○	조선사편수회 간사
제정사	麻生	○	○	○	○	○	○	○	○	○	○	○	○	○	○	○	증추원
일선관 계사	柏原	○	○	○	○	○	○	○	○								조선사편찬위원 조선사학회 간사장
만선관 계사	麻生	○	○	○	○	○	○	○	○								-
법제사	교섭중									花村	○	○	○	○	○	○	경성제대 형법형사소 송법 교수
中央竝 地方制 度沿革 史	麻生	○	○	○	○	○	○	○	○	○	○	○	○				-
軍制史	麻生													○	○	○	-
교육제 도사	小田	○	○	○	○	○	○	○									-
사회제 도사	村山						○			○	○	○	○	○	○	○	총독부 '조선사회사정' 담당 경성제대 '조선문학' 교수
사회사	高橋																-
정쟁사	瀬野							小田	○	○	○						-
학예사	洪熹	○	○	○	○	○	○	○	○	○	○	○	○	○	○	○	조선사편수위원
불교사	李能和	○	○	○	○	○	○	○	○	○	○	○	○	○	○	○	조선사편수위원
서교사	杉本																-
미술사	關野	○	○	○	○	○	○	○	○	○	○	○	○	○	○	○	도쿄제대 교수
동(書畫 를 주로)	鮎貝																박물관협의회원
어학사	小倉	○	○	○	○	○	○										경성제대 '조선어학' 교수
지방제 정사														麻生	○		-

3)특별강의 및 임시특별강의																	
강의명	강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비고
고적유물	藤田							○	○	○	○	○	○	○	○	○	박물관 주임 경성제대 '조선사학' 교수
관습법	渡邊																경성제대 학생감
도서해제	荻山	○															-
금석문	葛城	○	○	○	○	○	○	○	○	○	○	○	○	○	○	○	조선사편수회
國文史吐俗證造字俗音借訓字	鮎貝	○	○	○													-
풍수설	村山					○	○	○	○								-
고려대장경	菅野	○	○	○	○	○	○										중추원
천도교	大原																-
海流と民族				菅野	○												-
舊社會事情	加藤*	○	○	○													『조선』 편집 경성제대 촉탁
朝鮮及滿洲の	大原	○															-
漢の孝文廟					稻葉												-
震災と						稻葉											-
文成公安裕						柏原	柏原										-
鳴洋峽						柏原											-
上古史の							大原										-
朝鮮における								稻葉									-
蔚山城									瀬野								-
三韓の										三浦	○	○					반도사편찬위원회 교토제대교수
儒學										高橋	○	○	○	○	○	○	-
權域										渡邊	○	○	○	○	○		-
灣商													稻葉				-
陶器														加藤			-
陶磁器															加藤	○	-
京城における															小田	○	-
高句麗の																稻葉	-

\*절은 부분은 『조선사강좌』의 기획 당초에 계획되었던 강의명임.

\*그 외는 이후에 개설된 강의이며 이름이 있는 월부터 강의가 개시됨을 표시함.

\*강사명은 아래와 같으며, 정식 강의명은 주제어만으로 표시했음을 일러둔다.

小田省吾/荻山秀雄/瀬野馬熊/杉本正介/大原利武/稻葉岩吉/麻生武龜/柏原昌三/花村美樹/村山智順/高橋亨/鮎貝房之進/菅野銀八/藤田亮策/渡邊洞雲/葛城末治/加藤灌覺(常賢)/三浦周行/小倉進平. 이외에도 이후 총장을 지내는篠田治策와 조선사 연구자 黑板勝美가 고문으로 참가했다.

\*加藤灌加의 경우, 1936년 『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에 따르면 “囑託/조선총독부직속기관/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lt;Abstract&gt;

## Takahashi Tohoru and 'Joseon(Korean) Literature' Classes at Kyungsung(keizo) Imperial University

Park, Kwang-hyoun \*

Takahashi Tohoru has so far been mainly viewed in Korea as a Japanese scholar who studied only Korean Confucianism. Korean researchers seem to have overlooked the fact that he had been in fact a professor of 'Joseon(Korean) Literature' at Kyungsung(keizo) Imperial University in Joseon. That is partly because his studies on Korean Confucianism have attracted too much attention among them. From 1926 when the university was established, he as a professor was in charge of the classes on 'Joseon Literature' until 1939 when he was retired. Even after his retirement, he as a emeritus professor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class. In this regard, it is most natural that we tries questioning matter-of-factly on how he thought about 'Joseon Literature'. This study, while following his careers as a 'Joseon Literature' professor, raises crucial questions and issues as follows. First of all, I illuminate what it means that he became a first professor lecturing on 'Joseon Literature' at a period when 'Joseon Literature' as a department was being established. And then I focus on what role he played in the process of the department being developed. Thirdly I also investigate about when he got to build his identity as a scholar on 'Joseon Literature', and when and how he incorporated his

---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former studies into the category of 'Joseon Literature'. While making clear these questions and issues, the range of 'Joseon Literature' he envisioned will take shape. In this process, I could identify what effects his limitations as a Japanese had on classes on 'Joseon Literature' at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It is after he had been appointed as a professor at Kyung-sung Imperial University that he began to build his scholastic identity studying 'Joseon Literature'. From this period, he continued to incorporate his former studies including Joseon Buddhism into the range of 'Joseon Literature'. In sum, it could be argued that he didn't become a professor as a scholar on 'Joseon Literature', but he began being a scholar on 'Joseon Literature' from the point when he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Key Words : Takahashi Tohoru(高橋亨), Joseon Literature(朝鮮文學),  
Kyung-sung(keizo)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